

V. 결론 및 시사점

1. 발생률(빈도) 및 건당본인부담금(심도)

요즈음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순보험료 기준으로 100%를 상회하는 지급보험금 지급률 그리고 그것의 상승 추세는 매년 순보험료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속도를 초과하는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보험리스크 경감 방안을 찾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전통적 순보험료법과 다면건강보험료법으로 발생률, 건당본인부담의료비 및 순보험료를 산출한 뒤 그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했다.

다면건강보험료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보다 입원 발생률은 연간 1인당 0.0001, 순보험료는 약 130원 높았다. 그러나 각각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추정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절대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회귀분석 결과를 각각에 대해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건당본인부담의료비, 발생률, 순보험료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본문에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상해 및 출산은 우연하고도 급격하며, 인위적일 수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예: 고령화, 건강검진, 여자경제활동)과 미미한 관계를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해 및 출산이 포함되지 않은 질병중심의 2001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결론에 제시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고령자는 민영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는다.

최근 여자경제활동의 증가 추세는 지급률 혹은 손해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표 V-1> 참조). 여자경제활동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외래 발생률은 2.890% 포인트 감소하고, 입

<표 V-1> 발생률 및 건당본인부담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2001)

구분	발생률		건당본인부담금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여자경제활동률	-2.890	0	0	-6.510
가구당실질소득	1.091	0	2.290	0
65세이상 인구비율	0.397	0	0	0
건강검진율	0	-1.706	-1.414	-2.228

주 : 여자경제활동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건강검진율과 종속변수인 발생률은 %값에 자연대수를 취한 것이며, 1인당 실질소득은 자연대수값이다.

원 건당 본인부담금은 6.510%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보험 리스크 관리에 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의 증가 추세는 외래발생률 및 건당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켜 지급률 혹은 손해율을 악화시킬 것이다. 입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구당실질소득이 1% 변화하면 외래발생률은 1.091%P, 외래 건당 본인부담금은 2.290%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 외래진료를 집중적으로 받아 입원이 발생할 정도의 중증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향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입원 의료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준의 변화에 의한 이러한 영향을 외래 발생률 산출, 계약인수 과정, 상품개발 방향에 반영하면 보험리스크가 경감될 것이다.

건강검진율의 변화는 외래 발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 발생률을 감소(-1.706)시키므로 건강검진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자료와 2001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 추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율의 상승은 외래(-1.414)는 물론 입원 건당 본인부담금(-2.228)을 크게 낮추므로 수검률 증대 노력 및 건강검진 여부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2. 건강보험 리스크

2001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표 V-2> 참조), 최근 여자의 경제활동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여자경제활동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외래발생률은 2.890%P 감소함과 동시에 외래순보험료(외래본인부담의료비)를 5.25%, 입원의 경우는 10.952%, 외래+입원의 경우는 5.813% 경감시킨다. 즉, 실제 보험회사들의 보험데이터에 나타난 현상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여자의 경제활동은 여성자신의 의료이용을 줄어뜨리게 하고 여자의 가정간호는 여자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미약할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구의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든가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되고, 건강체의 가입률이 증대되어 보험금 지급률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외래이용을 자주 그리고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중증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의 1% 증가는 외래본인부담의료비를 3.382% 증대시키지만 입원본인부담의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발생률과 건당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래본인부담의료비에는 영향을 주지만 입원본인부담의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순보험료 산정과정과 계약인수 과정에 이를 고려하면 보험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건강검진이 중증질환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본인부담의료비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건강검진율은 외래발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외래건당본인부담의료비, 입원발생률, 입원건당본인부담의료비에는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영향들이 순보험료에 중

<표 V-2> 순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2001)

구분	외래	입원	외래+입원
여자경제활동률	-5.250	-10.952	-5.813
1인당실질소득	3.382	0	3.333
65세이상 인구비율	0.862	0	0.794
건강검진율	-1.804	-3.933	-2.066

주 : 여자경제활동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건강검진율은 %값에 자연대수를 취한 것이며, 1인당 실질소득, 순보험료는 자연대수값이다.

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수검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외래순보험료는 1.804%, 입원순보험료는 3.933%, 외래+입원순보험료는 2.066%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증진에 의한 경제활동 증대 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절감효과까지 고려하면 건강검진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면 계약인수 시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영건강보험은 역선택이나 비건강체의 가입이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위와 같이 할인 혜택을 부여하면 가입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건강체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급률 혹은 손해율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 건강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와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을 절감 하고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강증진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추세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등 환경변화를 볼 때 적절한 대응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1천 3백만명 정도가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대상자의 확대가 요망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2004년 수검률을 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역가입자는 23.87%, 직장가입자는 79.37%, 공교가입자는 82.86%, 직장피부양자는 34.36%이었고, 연령별로 보면 20~24세군이 77.66%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군은 34.29%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검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확대 및 홍보 강화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동기부여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유기적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일컫는 최근의 웰빙 붐과 어우러져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순보험료의 산출, 보험리스크 관리 등에 이용되면 보험회사의 지급률 및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므로 적절히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